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Bulgwawonoseonsapyeongckang-Seoldusonggo-Byeogamrok*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4. 古興藏本「碧巖錄」 |
| 2. <四序>와 <五後序>의 記錄內容 檢討 | 4.1 古興藏本の 構成과 內容 |
| 3. 「碧巖錄」의 編纂·初刊과 焚毀·重刊 | 4.2 古興藏本の 特徵과 價値 |
| 3.1 「碧巖錄」의 編纂과 初刊 | 5. 結 論 |
| 3.2 「碧巖錄」의 焚毀와 重刊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碧巖錄」의 編纂·初刊·焚毀·重刊·流通 및 새로 발견된 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의 版本 등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碧巖錄」은 佛果克勤 선사의 문도들이 雪竇重顯 선사의 「雪竇頌古」를 저본으로 佛果禪師가 添述한 鈞語(垂示)와 短評(着語) 및 詳評(評唱) 등의 내용 등을 부가하여 편찬한 禪家의 敎訓書이자 禪法書이며, 그 구조는 대체로 ① 佛果禪師의 垂示, ② 雪竇禪師의 本則, ③ 佛果禪師의 本則評唱, ④ 雪竇禪師의 頌, ⑤ 佛果禪師의 頌評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碧巖錄」은 늦어도 北宋朝 宣和 7년(1125) 무렵에 편찬이 완료되고 南宋朝 建炎 2년(1128)에 初刊되었으나, 紹興 10년(1140)을 전후로 문도와 학인들의 迷惑을 염려한 大慧禪師에 의하여 일체의 寫本·版本·木版 등이 焚毀되어 현재 전해지는 初刊本은 全無하다.

(3) 「碧巖錄」의 重刊은 張明遠이 雪堂刊本과 蜀[寫]本을 저본으로 大德 4년(1300) 무렵에 重刊에 착수하여 延祐 4년(1317) 무렵에 완성된 것이며, 張明遠 重刊本에서 시작된 則次番號는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다.

(4) 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은 도합 23칙이 수록된 제2권만 잔존하는 ‘零本’으로 張明遠 重刊本과 則次番號, 수록내용, 서술용어, 文章의 刪略, 語順의 변동, 虛詞와 語氣詞의 생략, 避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初期의 刊本임이 확실하다.

(5) 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은 현전하지 않는 初刊의 雪堂刊本인지 坊刻本 중의 하나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張明遠 重刊本보다 간행시기가 앞서는 刊本임은 틀림이 없으며, 「碧巖錄」의 원본연구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禪宗文獻임과 아울러 現存 世界最古의 「碧巖錄」으로 평가될 수 있는 文化財이다.

要語: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碧巖錄」, 佛果克勤, 佛果圓悟, 雪竇, 大慧宗吳, 張明遠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8년 4월 19일 최초심사일: 2018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9일
서지학연구, 제74집, 5-29,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5]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Bulgwawonoseonsapyeongckang-Seoldusonggo-Byeogamrok*(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Collected by Goheung Museu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Byeogamrok* is a book containing lessons and teachings of the Zen Buddhism. It is based on Seoldujunghyeon's *Seoldusonggo*, to which disciples of Bulgwageukgeun added edifications (鈞語), commentaries (着語), and criticisms (評唱) of their teacher. It consists of five elements: ① an introduction (垂示) by Bulgwageukgeun; ② original koans (本則) of Seoldujunghyeon; ③ Bulgwageukgeun's commentaries to Seoldujunghyeon's koans (本則評唱) ④ poems by Seoldujunghyeon (頌); and ⑤ Bulgwageukgeun's commentaries to Seoldujunghyeon's poems (頌評唱).

(2) The writing of the *Byeogamrok* was completed no later than the seventh year of Xuanhe (宣和, 1125), and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the second year of Jinyan (建炎, 1128). However, around the 10th year of Shaoxing (紹興, 1140), Daehyeseonsa burned all handwritten copies, woodblock-printed copies, and woodblocks of the *Byeogamrok* for fear that the book might lead his disciples astray. For this reason, none of the first edition copies survive to this day.

(3) The *Byeogamrok* was republished by Jangmyeongwon, who based his edition on the Seoldang edition and the edition published in the Shu region. The republication work began in or around the 4th year of Dade (大德, 1300), and ended in or around the fourth year of Yanyu (延祐, 1317). The numbering of the original koans used in Jangmyeongwon's edition is still followed today.

(4) The *Bulgwawonoseonsapyeongckang-Seoldusonggo-Byeogamrok* edition housed at the Goheung Museum is an incomplete version which solely consists of the second volume containing 23 koans. The Goheung Museum edition is different from Jangmyeongwon's republished edition in several respects, including the numbering of the koans, its content, the words used, the omission of some sentences and postpositions, and substitution of certain letters in the names of revered figures.

(5) At this point, it cannot be ascertained whether the edition housed at the Goheung Museum is one of the first edition copies that were thought to have been lost.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edition predates Jangmyeongwon's republished edition, the Goheung Museum edition is a Zen Buddhism literature that hold an immense value for research of the original *Byeogamrok*. Also, as a cultural property, it is the world's oldest the *Byeogamrok* to date.

Key words: the *Bulgwawonoseonsapyeongckang-Seoldusonggo-Byeogamrok*(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the *Byeogamrok*(碧巖錄), the *Blue Cliff Record*(碧巖錄), Bulgwageukgeun(佛果克勤), Seoldu(雪竇), Daehyeajonggo(大慧宗杲), Jangmyeongwon(張明遠)

1. 緒 言

『碧巖錄』¹⁾은 宋朝의 佛果克勤²⁾ 선사(의 문도·학인들이 雪竇重顯³⁾ 선사의 『雪竇頌古』를 저본으로 佛果禪師가 添述한 鈞語(垂示)와 短評(着語) 및 詳評(評唱) 등의 내용을 부가하여 編纂한 禪家의 敎訓書이며 禪法書이다.

『碧巖錄』의 저본인 『雪竇頌古』는 雪竇禪師가 『景德傳燈錄』의 1,700則의 公案과 『祖堂集』 및 기타의 古記錄에서 達摩禪의 本領을 발취하여 學人들의 수행에 指南이 될 만한 100칙을 골라 각칙마다 宗旨를 거양하는 韻文의 ‘頌’을 부가한 것이다. 『雪竇頌古』는 후일에 佛果禪師가 泗川省의 成都 昭覺寺와 湖南省 夾山寺의 靈泉禪院 및 湘西 道林寺 등에서 문도·학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敎導하며 禪風을 드날릴 때 강설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佛果禪師로부터 교도된 門徒들이 聽聞한 내용을 集錄하여 편찬된 것이 『碧巖錄』이다.

『碧巖錄』은 편찬된 이래 寫本으로 유통되다가 木版本으로 간행되었으나 佛果禪師의 제자인 大慧宗杲⁴⁾ 선사에 의하여 당시까지 유통되던 『碧巖錄』과 관련된 일체의 寫本과 刊本 및 木板까지

- 1) 『碧巖錄』: 『佛果圓悟禪師碧巖錄』·『圓悟老人碧巖錄』·『圓悟碧巖錄』·『碧巖集』 등 다양하게 稱名되고 있으며, 『大正新修大藏經』 第48冊과 『禪宗全書』 제89책 등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碧巖集』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 2) 佛果克勤(1063-1135): 克勤圓悟·昭覺克勤·圓悟克勤·圓悟克勤·佛果圓悟·圓悟佛果·眞覺禪師 등으로 稱名되기도 한다. 泗川省 彭州 출신으로 俗姓은 駱氏이고 휘는 克勤이며 자는 無著이다. ‘佛果’는 北宋朝 徽宗의 賜號이고 ‘圓悟’는 南宋朝 高宗의 賜號이며 ‘眞覺’은 남송조 고종이 하사한 諡號이다. 저술로는 『碧巖集』·『語錄』(21권) 등이 있고 法嗣로는 虎丘紹隆·大慧宗杲·佛智端裕 등의 선사가 있으며, 특히 大慧禪師는 默照禪을 비판하고 看話禪을 제창하여 禪宗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사는 “菩提達磨(初祖·楞伽宗) - 神光慧可(02) - 皖公僧璨(03) - 雙峰道信(04·東山宗) - 黃梅弘忍(05) - 曹溪惠能(06·南宗) - 南嶽懷讓(07) - 馬祖道一(08·洪州宗) - 百丈懷海(09) - 黃蘗希運(10) - 臨濟義玄(11·臨濟宗) - 興化存獎(12) - 南院慧願(13) - 風穴延沼(14) - 首山省念(15) - 汾陽善昭(16) - 石霜楚圓(17) - 楊岐方會(18·楊岐派) - 白雲守端(19) - 五祖法演(20) - 佛果克勤(21) - 大慧宗杲(22·大慧派) - 雪峰慧然(23) - 如如顏丙(24·三教老人) …”으로 系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용문이 아닌 경우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佛果禪師’로 통칭하고자 한다.
- 3) 雪竇重顯(980-1052): 明覺重顯·雪竇明覺·明覺大師 등으로 稱名되기도 한다. 泗川省 遂州 출신으로 휘는 重顯이고 자는 隱之이며 호는 明覺이다. 詩文에 뛰어나 『洞庭語錄』·『雪竇開堂錄』·『瀑泉集』·『祖英集』·『雪竇頌古集』·『拈古集』·『雪竇後錄』 등 雪竇七部集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雪竇頌古』는 100칙의 공안을 엄선한 것으로 禪宗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碧巖錄』의 모체가 되었다. 선사는 “菩提達磨(初祖·楞伽宗) - 神光慧可(02) - 皖公僧璨(03) - 雙峰道信(04·東山宗) - 黃梅弘忍(05) - 曹溪惠能(06·南宗) - 青原行思(07) - 石頭希遷(08·洪州宗) - 天皇道悟(09) - 龍潭崇信(10) - 德山宣鑑(11) - 雪峰義存(12) - 雲門文偃(13·雲門宗) - 香林澄遠(14) - 智門光祚(15) - 雪竇重顯(16) - 天衣義懷(17) …”로 系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용문이 아닌 경우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雪竇禪師’로 통칭하고자 한다.
- 4) 大慧宗杲(1089-1163): 大慧禪師·大慧普覺·徑山宗杲·徑山大慧·妙喜·普覺禪師·佛日大師 등으로 稱名되기도 한다. 安徽省 宣州 寧國縣 출신으로 俗姓은 奚氏이고 자는 曇晦이며 호는 妙喜·雲門 등이다. ‘大慧’는 남송조 隆興 원년(1163) 효종의 賜號이며 ‘普覺’은 諡號이다. 저술로는 『大慧普覺禪師語錄』·『大慧普覺禪師普說』·『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大慧普覺禪師書』·『大慧普覺禪師法語』·『大慧杲禪師語』·『大慧集鈔』·『禪林寶訓』 등이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용문이 아닌 경우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大慧禪師’로 통칭하고자 한다.

모두 焚毀됨으로써 한 때 그 유통이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元朝의 張明遠⁵⁾에 의하여 『碧巖錄』이 목판으로 重刊⁶⁾되면서 그 명맥이 되살아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통·애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碧巖錄』의 편찬과 간행 및 유통과 版本 등에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실정이다.⁷⁾

최근에 필자는 初刊本도 重刊本도 아닌 새로운 『碧巖錄』⁸⁾ 零本 1책의 목판본을 實査한 바 있다. 이 판본은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과는 내용과 형태면에서 다른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간행시기도 張明遠 重刊本에 앞서는 初期의 版本으로 추정된다.

본고는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에 수록된 <四序>와 <五後序>의 내용검토와 『碧巖錄』의 編纂·刊行·流通 등을 바탕으로 새로 발견된 古興藏本 『碧巖錄』 제2권의 판본에 관하여 고구함으로써 『碧巖錄』의 간행과 판본 및 유통 등을 이해하는 데에 一助하고자 한다.

2. <四序>와 <五後序>의 記錄內容 檢討

현재 『碧巖錄』의 편찬과 초간 및 禁毀와 重刊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는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에 수록되어 전하는 <四序>와 <五後序>에 불과하다.

그러나 9편의 <序>와 <後序>에 나타나는 작자와 본문의 내용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혼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먼저 이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① 比丘普照의 <序>⁹⁾: 말미에는 “建炎 2년(1128) 3월 말일에 參學嗣祖 比丘普照는 삼가 序하

5) 張明遠(?-?, 元朝): 諱는 偉(煒)이고 자는 明遠이다. 浙江省 杭州 北橋北街 東邊의 嵎中 또는 辱中에 거주하며 ‘張氏書隱’ 또는 ‘嵎中書隱’·‘嵎中書隱’에서 『碧巖錄』을 重刊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의 行歷에 관하여 전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張明遠’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6) <張明遠 重刊의 『碧巖錄』>: 이 版本의 『碧巖錄』은 10권 10책으로 卷頭와 卷尾의 書名은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이다. 本稿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7) 『碧巖錄』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① 李豐園, “『碧巖錄』研究,” (碩士學位論文, 上海師範大學, 2004), ② 末木文美士, “『碧巖錄』の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第18號(1995), 51-81, ③ 宋靜淑,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의 編纂과 受容,” 『書誌學研究』第60輯(2014), 109-143, ④ 徐時儀, “古興藏木刻本『碧巖錄』考,” 『文獻』第4號(2016), 45-53 등 다양하다.

8) <새로운 『碧巖錄』>: 이 版本의 『碧巖錄』은 권2의 1책만이 殘存되고 있는 零本이다. 筆者가 實査한 바의 卷頭書名은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이고 卷尾書名은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이며, 古興博物館의 所藏本이다. 本稿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古興藏本 『碧巖錄』’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9) ① “至聖命脈 列祖大機 換骨靈方 頤神妙術 其惟雪竇禪師 具超宗越格正眼 提掇正命 不露風規 秉烹佛鍛祖鉗 鍾 頌出納僧向上巴鼻 銀山鐵壁 孰敢鉗研 蚊咬鐵牛 難爲下口 不逢大匠 焉悉玄微 粵有佛果老人 住碧巖日 學者迷而請益 老人憫以垂慈 剔抉淵源 剖析底理 當陽直指 豈立見知 百則公案 從頭一串穿來 一隊老漢 次第總將按過 須知趙壁本無瑕類 相如謾誑秦王 至道實乎無言 宗師垂慈救弊 倘如是見 方知徹底老婆 其或泥句沉言 未免滅佛種族 普照幸親師席 得聞未聞 道友集成簡編 鄙拙敘其本末 時建炎戊申暮春晦日 參學嗣祖 比丘

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佛果老師께서 碧巖에 住持하실 때 迷惑한 수행자들이 請益을 하였다.”·“普照는 다행히 스승님을 친히 모실 수 있어 이제까지 聽聞할 수 없었던 바를 청문할 수 있었으며, 道友들이 簡編을 집성하자 鄙拙하나 그 本末을 쓴다.” 등의 표현과 함께 佛果禪師가 夾山寺 靈泉禪院에서 講說하게 된 연기를 중심으로 『碧巖錄』의 편찬과 초간에 관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작자인 ‘比丘普照’가 佛果禪師의 직접제자인 것은 분명하나 어느 禪僧을 칭명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佛果禪師 계보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建炎 2년(1128)과 연관되는 ‘普照’라는 직접제자는 普照佛心勝¹⁰⁾ 선사와 普照奉勝¹¹⁾ 선사 등이 있는 바, ‘比丘普照’는 이들 선사 중의 한 분이 아닌가 한다. 이 <序>는 佛果禪師가 입적하기 8년 전, 大慧禪師가 40세이던 해에 저작된 것이다. 이 <序>는 1128년에 『碧巖錄』이 初刊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이며, 이 초간의 판본이 道林寺의 사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어 現傳하지 않는 雪堂刊本이 아닌가 한다.

[2] 方回萬里的 <序>¹²⁾: 말미에는 “大德 4년(1300) 4월 초과일에 紫陽山人 方回萬里는 序하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弘忍(602-675)祖師 하대의 南宗과 北宗의 특징은 물론 “雪竇禪師와 圓悟禪師는 노파심이 간절하였으나 大慧禪師는 일거에 焚毀하였으며, 嶠中の 張明遠이 타고 남은 재(灰) 속에서 다시금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과 焚毀 및 張明遠에 의하여 『碧巖錄』이 중간된 사실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작자인 ‘方回萬里’는 자가 ‘萬里’인 方回¹³⁾를 지칭하며, 그가 졸거하기 6년 전인 74세에 저작된 서문이다. 이 <序>는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65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37년 후에 저작된 것이며, 1300년부터 張明遠에 의하여 『碧巖錄』의 중간이 계획되어 始役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聊城周馳의 <序>¹⁴⁾: 말미에는 “大德 9년(1305) 3월 길일에 玉岑의 休休居士 聊城 周馳는

普照謹序.”

- 10) 普照佛心勝(?-?, 南宋朝): “天寧佛果圓悟克勤禪師法嗣 … 泗州普照佛心勝禪師.” <<http://authority.dila.edu.tw/person/>> 선사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顥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普照佛心勝 …”으로 系譜되고 있다.
- 11) 普照奉勝(?-?, 南宋朝): “昭覺圓悟克勤禪師法嗣 … 普照奉勝禪師.” <<http://authority.dila.edu.tw/person/>> 선사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顥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普照奉勝 …”으로 系譜되고 있다.
- 12) [2] “自四十二章經入中國 始知有佛 自達摩至六祖傳衣 始有言句曰 本來無一物爲南宗 日時時勤拂拭爲北宗 於是有禪宗頌古行世 其徒有翻案法 呵佛罵祖 無所不爲 間有深得吾詩家活法者 然所謂第一義 焉用言句 雪竇·圓悟 老婆心切 大慧一炬丙之矣 嶠中張偉明遠 燃死灰復板行 亦所謂老婆心切者歟 大德四年庚子四月初八日癸丑 紫陽山 方回萬里序.”
- 13) 方回(1227-1305): 元朝의 詩人 및 詩論家로 安徽省 徽州 歙縣 출신의 漢族이다. 자는 萬里이고 호는 虛谷·紫陽山人 등이다. 남송조 理宗의 景定 3년(1262)에 進士에 급제하여 權臣 賈似道에게 <梅花百咏>의 詩를 바쳐 아첨하였으나 후에 賈似道의 권력이 패퇴되자 다시 그를 참수하여야 한다는 疏를 올려 嚴州(今 浙江建德)의 知府에 임명되었다. 元兵이 침입하려 할 때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고 高唱하였으나 막상 元兵이 밀어닥치자 항복을 主唱하여 建德路總管에 임명되었다. 오래지 않아 파직된 뒤 杭州 歙縣 일대를 중심으로 시인으로 노닐었으며 만년에는 杭州에서 賣文으로 생활하다가 老死하였다. 江西詩派를 중시하여 ‘一祖三宗說’을 제창하였으며, 당조와 송조의 近體律詩를 선집하여 『瀛奎律髓』를 편찬하였다. 저술로는 시문집인 『桐江集』(8권)과 『桐江續集』(36권) 등이 있으며, 聊城의 周馳와도 교유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錢唐의 觀橋寓舍에서 쓰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碧巖集』은 圓悟大師의 저술이나 그의 제자인 大慧禪師가 焚毀하였다.”·“나는 이 서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 하던 차에 嶗中の 張明遠이 다시금 목판에 판각을 시작하며 나에게 함께 도모할 것을 중용하여 와서 協贊하여 완성하고 그 서문까지도 쓴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과 분쇄 및 張明遠을 조력하여 『碧巖錄』의 중간을 완성하고 서문까지 저작한 내력이 기술되어 있다. 이 <序>는 작가인 周馳¹⁵⁾의 21세에,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70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42년 후에 저작된 것이다. 당시 약관의 周馳가 조력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가 行書와 草書에 정통한 서예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조력은 板下本の 제작이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당년(1305)부터 『碧巖錄』의 중간을 위한 편집과 板下本の 제작에 착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④ 三教老人의 <序>¹⁶⁾: 말미에는 “大德 8년(1304) 4월 15일 三教老人이 쓰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圓悟禪師는 자손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雪竇頌古』를 강설하였으며, 大慧禪師는 [자손들이] 불에 탈까 물에 빠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서 『碧巖集』을 焚毀하였다.”·“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에 嶗中の 張明遠이 목판으로 새겨 길이 전하게 된 데에는 … 그 由緒가 매우

14) ③ “碧巖集者 圓悟大師之所述也 其大弟子大慧禪師 乃焚棄其書 世間種種法皆忌執著 釋子所歸敬莫如佛 猶有時而罵之 蓋有我而無彼 由我而不由彼也 舍己徇物 必至於失己 夫心與道一 道與萬物一 充滿太虛 何適而非道 第常人觀之 能見其所見 而不見其所不見 求之於人 而人語之 如東坡日喻之說 往復推測 愈遠愈失 自吾夫子體道 猶欲無言 而況佛氏爲出世間法 而可於文字言語而求之哉 雖然 亦有不可廢者 智者少而愚者多 已學者少未學者多 大藏經五千餘卷 盡爲未來世設 苟可以忘言 釋迦老子便當閉口 何至如是叨叨 天下之理 固有不離尋常之中 而超出於尋常之表 雖若易知 而實未易知者 不求之於人 則終身不可得 古者名世之人 非千人之英 則萬人之傑也 太阿之劍 天下之利劍也 登山則數虎豹 入水則亡蛟龍 人之知之 盡於是已 然古人有善用之者 乘城而戰 順風而揮之 三軍爲之大敗 流血緒乎千里 是豈可以一己之所能 而盡疑之哉 自吾聞有是書 求之甚至 嶗中張氏 始更刻木 來謀於予 遂贊而成之 且爲題其首 大德九年歲乙巳 三月吉日 玉岑休休居士 聊城周馳書於錢唐觀橋寓舍。”

15) 周馳(1285-?): 山東省 聊城 출신으로 자는 景遠이고 자호는 休休居士·如是翁 등이며 南台監察禦史·愈燕南廉訪司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經術이 뛰어나 文名이 있었을 뿐 아니라 行書와 草書의 書法에 정통하였다. 저술로는 『如是翁集』·『書史會要』 등이 있으며, 方回와도 교유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16) ④ “或問 碧巖集之成毀孰是乎 曰皆是也 齷齪來東 單傳心印 不立文字固也 而血脈·歸空諸論 果誰爲之哉 古謂不在文字不離文字者 眞知言 已使人人於卷簾·聞板·豎指·觸脚之際 了卻大事 文字何有哉 拈花微笑以來 門竿倒卻之後 才涉言句 非文字無以傳 是又不可廢者也 祖教之書 謂之公案者 倡於唐而盛於宋 其來尙矣 二字乃世間法中吏牘語 其用有三 面壁功成 行脚事了 定盤之星難明 野狐之趣易墮 具眼爲之勘辨 一呵一喝 要見實詣 如老吏據獄讞罪 底裏悉見 情款不遺 一也 其次則嶺南初來 西江未吸 亡羊之歧易位 指海之針必南 悲心爲之接引 一棒一痕 要令證悟 如廷尉執法平反 出人於死 二也 又其次則犯稼憂深 系驢事重 學奕之志須專 染絲之色易悲 大善知識爲之咐囑 俾之心死蒲團 一動一參 如官府頒示條令 令人讀律知法 惡念才生 旋即寢滅 三也 具方冊作案底 陳機境 爲格令 與世間所謂金科玉條清明對越諸書 初何以異 祖師所以立爲公案 留示叢林者 意或取此奈何末法以來 求妙心於瘡紙 付正法於口談 點盡鬼神 猶不離簿 傍人門戶 任喚作郎 劍去矣而舟猶刻 兔逸矣而株不移 滿肚葛藤 能問千轉 其於生死大事 初無干涉 鐘鳴漏盡 將焉用之 嗚乎 羚羊掛角 未可以形跡求 而善學大意者 豈步亦步 趨亦趨哉 知此則二老之心皆是矣 圓悟顧念子孫之心多 故重拈雪竇頌 大慧救焚拯溺之心多 故立毀碧巖集 釋氏說一大藏經 末後乃謂 不曾說一字 豈欺我哉 圓悟之心 釋氏說經之心也 大慧之心 釋氏諱說之心也 禹稷顏子 易地皆然 推之挽之 主於車行而已 爾來二百餘年 嶗中張明遠 復鑲梓 以壽其傳 豈祖教回春乎 抑世故有數乎 然是書之行 所關甚重 若見水即海 認指作月 不特大慧憂之 而圓悟又將爲之去粘解縛矣 昔人寫照之詩曰 分明紙上張公子 盡力高聲喚不應 欲觀此書 先參此語 大德甲辰四月望 三教老人書。”

깊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과 焚毀 및 張明遠에 의하여 『碧巖錄』이 중단된 사실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작자인 ‘三敎老人’은 雪峰慧然(?-?) 선사의 法嗣로 儒佛道を 겸통한 如如顔丙(?-?, 남송)¹⁷⁾ 선사의 自號이다. 이 <序>는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69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41년 후에 저작된 것이다.

⑤ 關友無黨의 <後序>¹⁸⁾: 말미에는 “宣和 7년(1125) 3월 上休에 牟人 關友無黨은 쓰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雪竇頌古』의 중요성은 물론 “圓悟老師께서 成都에 계실 때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雪竇頌古』를 請益한 바 있으며 그 후 老師께서 夾山과 道林에 주지하실 때에도 다시금 학도들을 깨우치시어 무릇 3차에 걸쳐 宗綱을 제창하셨으나 비록 말씀은 같지 않았어도 그 宗旨는 하나였으며, 문인들이 이를 掇拾하고 기록한 지 20년이나 되었다. 老師께서 전혀 간여하지 않으신 끝에 사방으로 유전되는 과정에서 그릇되거나 뒤섞여지기도 하였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에 관한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작자인 ‘關友無黨’은 자가 ‘無黨’인 關友(?-?)를 지칭하는 듯하나, 그의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다. 이 <後序>는 佛果禪師가 입적하기 11년 전, 大慧禪師가 37세이던 해에 저작된 것이다. 따라서 宣和(1125)부터 『碧巖錄』의 초간을 위한 役事に 착수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⑥ [張明遠]의 <後序>¹⁹⁾: 먼저 “圓悟禪師의 『碧巖集』은 經道이며 大慧禪師의 焚毀는 權道이다.”라는 無盡祖燈²⁰⁾ 선사의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를 인용하여 <後序>를 저작하고 그 말미에는 “今月某日에 疏하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200년 동안 碧巖과 雪竇를 볼 수 없었던 것은 홀연 그 수하에서 焚毀된 때문이었으나 어찌 그 전승까지 단절될 수 있을 것이겠는가!” · “옛적

17) 三敎老人(?-?, 南宋): 雪峰慧然(?-?)의 法嗣인 如如顔丙(?-?, 南宋) 거사의 자호이다. 그는 博學多聞하여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도 겸통한 인물이었으며, 저술로는 『三敎咏』·『普勸修行文』 등이 있다. 선사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顒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大慧宗杲(大慧派) - 雪峰慧然 - 如如顔丙(三敎老人) ...”으로 系譜되고 있다.

18) ⑤ “雪竇頌古百則 聚林學道 詮要也 其間 取譬經論 或儒家文史 以發明此事 非具眼宗匠 時爲後學 擊揚剖析 則無以知之 圓悟老師 在成都時 予與諸人 請益其說 師後住夾山道林 復爲學徒扣之 凡三提宗綱 語雖不同 其旨一也 門人掇而錄之 既二十年矣 師未嘗過而問焉 流傳四方 或致踳駁 諸方且因其言 以其道不能尋繹之 而妄有改作 則此書遂廢矣 學者幸緝其傳焉 宣和乙巳春暮上休 牟人關友無黨記.”

19) ⑥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 雪竇頌古百則 圓悟重下注脚 單示叢林 永垂宗旨 經也 學人機鋒捷出 大慧密室勘辨 知無實詣 毀梓不傳 權也 此書諸佛正眼 列祖大機 兩經鉗錘 一無瑕稊 茲欲與大慧長書並駕 同圓悟心要兼行 揭杲日於迷途 指南於慧海 快然一睹 開彼群愚 相與圓成 不無利益 幸甚 右伏以 十七歲便悟雲門陸州 可道是口頭三昧 二百年不見碧巖雪竇 忽遭渠手下一交 怎忘得弓冶裘箕 莫斷卻兒孫種草 隨人去脚跟後轉 誰下得釣龍鉤 有個具眼目的來 不看作系驢橛 此事當如筏喻 他時自會筌忘 家家門戶透長安 前者呼後者應 種種因緣歸大數 昔之廢今之興 莫怪山僧口多 終是老婆心切 不讀東土書 安知西來意 重興一代宗風 雖無南去雁 看取北來魚 便有十分消息 持同文印讀 無盡燈謹疏 今月日疏.”

20) 無盡祖燈(1296-1369): 俗姓은 王氏이고 자는 無盡이며 四明 출신의 승려이다. 禪師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顒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虎丘紹隆(虎丘派) - 應菴曇華 - 密菴咸傑 - 破菴祖先(破菴派) - 無準師範 - 天台妙倫 - 方山文寶 - 無盡祖燈 ...”으로 系譜되고 있다.

에 焚毀되었으나 지금 부흥시키려 한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焚毀와 중간에 관한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 <後序>의 작자와 저작의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작자는 『碧巖錄』의 중간을 주도한 張明遠이 아닌가 하며, ‘今月某日’은 마지막 馮子振의 <後序>가 “延祐 4년(1317) 7월 15일”에 저작된 점에서 미루어 1317년 7월의 모일이 아닌가 한다. 이 <後序>는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82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54년 후에 저작된 것이며, 아울러 1317년에 이르러 『碧巖錄』의 중간이 필역된 것이 아닌가 한다.

[7] 比丘淨日의 <後序>²¹⁾: 말미에는 “大德 6년(1302) 8월에 住天童 第七世 法孫인 比丘淨日이 拜手謹書하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圓悟老祖께서 夾山에 계실 때에 이 서적이 집성되고 … 妙喜老師께서 수행자들이 道에 근본하지 않고 지식에만 빠질 것을 염려하여 焚毀하였으며 … 지금 辱中の 張明遠이 목관으로 중간하니 과연 뭐라 하여야겠는가!”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과 焚毀 및 중간에 관한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작자인 ‘比丘淨日’은 無準師範 선사의 法嗣인 天童寺의 東巖淨日²²⁾ 선사를 지칭하며, 禪師가 88세로 입적하기 6년 전인 82세에 저작된 것이다. 동시에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82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54년 후에 저작된 것이다.

[8] 比丘希陵의 <後序>²³⁾: 말미에는 “延祐 4년(1317)에 迎佛會日 徑山住持 比丘希陵은 拜書하여 後序하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圓悟禪師께서 『雪竇頌古』를 評唱하셨다.” · “뒤에 大慧禪師께서는 … 후학들이 근본을 밝히지 못하고 연구어질을 숭상하여 巧語만을 도모하므로 이를 焚毀하여 그 폐단에서 구하려 하였다.” · “辱中の 張明遠이 우연히 雪堂刊本과 蜀本을 구하게 되어 그 訛舛을 校訂한 뒤에 간행하여 만고에 유통되도록 하였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 · 분쇄 및 중간의 저본이 雪堂刊本과 蜀[寫]본인 것까지도 기술되어 있다. 작자인 ‘比丘希陵’은 徑山希陵²⁴⁾ 선사를 지칭하며, 선사가 76세로 입적하기 5년 전인 71세에 저작된 것이다. 동시에 佛果禪師

21) [7] “圓悟老祖 居夾山時 集成此書 欲天下後世 知有佛祖玄奧 豈小補哉 老妙喜 深患學者 不根於道 溺於知解 由是毀之 謂其父子之間矛盾可乎 今辱中張居士重爲板行 果何謂哉 覽者宜自擇焉 大德壬寅中秋 住天童第七世法孫 比丘淨日拜手謹書.”

22) 東巖淨日(1221-1308): 俗姓은 廖氏이며 어려서부터 佛書의 암송을 즐겨하여 그 大意를 이해하였다. 15세에 廬山香林에서 祝髮하고 仰山 石霜禪師와 浙江의 徑山 癡絕禪師 등을 參謁하였으나 契合하지 못하다가, 徑山으로 들어가 無準禪師를 참견한 후에 다시 天童寺의 西巖了慧 선사를 參謁하고 마침내 비밀스레 그 禪旨에 契合하여 法嗣가 되었다. 景定年間(1260-1264)과 咸淳年間(1265-1274)에 圓通寺와 東林寺에 주지하다가 至元 29년(1292)에 育王寺로 移居하였으며, 후에 다시 雪竇寺에 은거하였다. 大德 4년(1300)에 天童寺에 주지하다가 至大 원년(1308)에 88세로 입적하였으며, 法嗣로는 天童如砥 선사와 江心無言 선사 등이 있다. 禪師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顒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虎丘紹隆(虎丘派) - 應菴曇華 - 密菴咸傑 - 破菴祖先(破菴派) - 無準師範 - 西巖了慧 - 東巖淨日 ...”로 系譜되고 있다.

23) [8] “圓悟禪師 評唱雪竇和尚頌古一百則 剖決玄微 抉剔幽迷 顯列祖之機用 開後學之心源 況妙智虛凝 神機默運 晶旭輝而玄扃洞照 圓蟾升而幽室朗明 豈淺識而能致極哉 後大慧禪師 因學人入室 下語頗異 疑之 才勘而邪鋒自挫 再鞠而納款自降 曰 我碧巖集中記來 實非有悟 因慮其後不明根 專尚語言以圖口捷 由是火之以救斯弊也 然成此書 火此書 其用心則一 豈有二哉 辱中張明遠 偶獲雪堂刊本及蜀本 校訂訛舛 刊成此書 流通萬古 使上根大智之士 一覽而頓開本心 直造無疑之地 豈小補云乎哉 延祐丁巳迎佛會日 徑山住持 比丘希陵 拜書以爲後序.”

24) 徑山希陵(1247-1322): 臨濟宗 楊岐派 破菴派의 禪僧으로 浙江省 義烏 출신이며, 俗姓은 何氏이고 자는 虛谷이

가 입적한 지 182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54년 후에 저작된 후서이다. 이 <後序>의 내용으로 『碧巖錄』의 중간을 위한 저본으로 雪堂刊本과 蜀[寫]本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⑨ 馮子振의 <後序>²⁵⁾: 말미에는 “延祐 4년(丁巳, 1317) 7월 15일 海粟老人 馮子振이 題하다.”라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成都의 佛果圓悟老師께서 夾山の 丈室에서 『雪竇頌古』를 강설하셨으나, 그 제자인 宗杲上座가 학인들이 言句에만 빠져 옛 조사들의 가르침을 저버릴까 염려하여 스승의 말씀을 모두 焚毀하자 연기와 함께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辱中の 張明遠이 관각에 착수하자 [분쇄한 목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등의 표현과 함께 『碧巖錄』의 편찬과 焚毀 및 중간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海粟老人’은 작자인 馮子振²⁶⁾의 자호이며, 그가

며 호는 西白이다. 博學多聞하고 19세에 東陽 資壽院에서 祝髮을 하고 구족계를 받은 뒤 곧이어 雙林寺의 虛舟遠公과 淨慈寺의 東叟仲穎 선사를 참알하였다. 뒤에 雪巖祖欽 선사의 法嗣가 되어 密印을 얻은 뒤에 그의 法席을 계승하였다. 延祐 3년(1316)에 徑山에 주지하고 世祖가 불러 謁見하자 ‘佛鑑’의 號를 내리고 ‘大圓’과 ‘慧照大辯’ 등을 加號하였다. 至治 2년(1322)에 世壽 76세 夏臘 57세로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瀑集』·『語錄』 등이 있다. 禪師는 “... 臨濟義玄(臨濟宗) - 興化存獎 - 南院慧顒 - 風穴延沼 - 首山省念 - 汾陽善昭 - 石霜楚圓 - 楊岐方會(楊岐派) - 白雲守端 - 五祖法演 - 佛果克勤 - 虎丘紹隆(虎丘派) - 應菴曇華 - 密菴咸傑 - 破菴祖先(破菴派) - 無準師範 - 雪巖祖欽 - 徑山希陵 ...”로 系譜되고 있다.

25) ⑨ “儒門子貢極有功於東家聖人 藉令良馬見鞭影而奔 皆如瞠若乎後之顏子 吾聖師游乎何言之天久矣 靈山會上 四衆海集 世尊拈花宗旨 諸人罔措 獨迦葉尊者 微爲之破顏 與吾教中一唯之外口耳俱喪 同一頓徹 慙悟 當時曾參不直下剖擊忠恕之秘鑰 豈惟門人之惑滋甚 千載之下 何以氣一貫之迷云乎 異時成都佛果圓悟老禪 笏夾山丈室拈提雪竇頌古百則 其大弟子臬上座 懼學人泥於言句 辜負從上諸祖 取老和尚舌頭 一截並付烈焰 煙而揚之拉搥堆 自以巨壑太虛投置毫滴 如古德德山賣弄油糞婆前 此疏鈔已埃冷而無餘矣 野火燒不盡 春風吹又生 花落碧巖陽坡如繡 歷過去劫 死灰復燃 不知何許 許多葛藤一一從 辱中張居士手栽無影樹子上 全體敗露 直得般若無說諸天雨花 百七八十年 衲僧驚地橫穿鼻孔 從前不曾嗅底寶熏 一旦水湧雲蒸 於八萬四千毛孔 悉普悉遍 可謂甚深希有 難值難遇之事 已而居士二子得心疾 或謂 勤寶經臬上座毀板 居士不當拾遺燼 而日月光景之故 受如是報 居士者疑其說 以質於予 予謂 圓悟門人 人人而臬上座 碧巖自碧 何得有說 臬上座見月亡指 遂乃追尤古佛 毒燎亘天 倒卻剎竿 不放一線 彼未嘗識月者 誰將乘一指而示之 或者又謂 臬上座火此書 盟之社鬼者深重 居士二子之患正坐此 予謂 當臬上座灼然秉炬時 煉得故紙通紅 何緣密室通風 老勤巴命門舌根 別自有不壞處 一星迸散 明月空山 張居士那裡得這消息來 把天然一段西蜀錦機 依舊織作舊日花樣 意者主林神陰爲之地 詞護至今 料亦是此書合出世因緣時節 清涼池上 針芥相逢 則書寫讀誦 爲人演說之功 應獲殊勝福德 何況金石刻鏤 展轉流布 居士二子之心疾根本 本不在此 客作漢妄以情識卜度 居士緣其目前不足計拔之禍福 亦以情識卜度之 是相隨赴火坑也 豈不冤哉 冥驗記 沛國周氏 三子並暗 一日有客造門曰 君可內省宿愆 忽猛憶兒時見燕巢三子 何其母出各以一蔕蔡吞之 斯須共斃 母還悲鳴而去 常自悔責 客曰 君既知悔責 罪今免矣 三子即皆能言 然則居士二子之病風喪心 得無亦有可悔恨之事乎 談般若者 若爲人輕賤 是人先世罪業 應墮惡道 以今世人輕賤故 先世罪業即爲消滅 居士能於此有省 縱無始劫來所造諸業 當應時消滅 即君二子之心疾 當如周氏三子之應時能言 可以不疑 世尊住世 四十九年 六百函文字 覆藏遍界 若從臬上座之說 萬年一念 更蹤跡什麼 向上禪林無限尊宿 有兩句最端的 曰 任爾即心即佛 我但非心非佛 今而後有謗如來正法輪者 君但應之曰 任汝說臬上座的是 我只說勤老師的是 若不如此 即恐燎卻面門 四百四病一時發矣 將如居士二子心疾何 不見古人道 養子方知父母恩 居士學佛知恩 臨老懺悔 他日作家爐鞴 跳出丈六金身 不知還見勤老師真個揚眉豎拂否 若還一句薦得 向道佛祖有誓 罪不重科 莫殃及他家兒孫好 雖然如是 且得沒交涉 是年延祐丁巳中元日 海粟老人馮子振題。”

26) 馮子振(1253-1348): 湖南省 湘鄉縣 출신으로 자는 海粟이고 자호는 瀛洲洲客·怪怪道人·海粟老人 등이다. 어려서부터 勤奮好學하여 읽지 않은 서적이 없었다고 하며, 大德 2년(1298)에 47세로 進士에 급제하자 ‘大器晚成’이라 칭송되었다. 才學이 뛰어나 承事郎을 비롯하여 集賢院의 學士와 待制 및 保寧과 彰德 등의 節度使를 역임하였다. 성품이 호방하고 개성적이어서 자유분방한 글씨를 썼던 서예가였으며, 運筆 때에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사람들에게 毛筆에 먹물을 먹여 기다리게 한 다음 一筆揮之하였다고 한다. 趙孟頫와 中峰明本 선사와

96세로 졸거하기 31년 전인 65세에 저작된 것이다. 동시에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182년, 大慧禪師가 입적한 지 154년 후에 저작된 것이다.

이상에서의 9편의 <序>와 <後序>에는 한결같이 『碧巖錄』의 編纂・初刊・焚毀・重刊 등과 관련된 전후의 사정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9편의 <序>와 <後序> 중에 佛果禪師(1063-1135)의 생전에 저작된 것은 ①・⑤이며, 후대의 禪僧에 의하여 저작된 것은 ④・⑦・⑧이고 居士・文人들에 의하여 저작된 것은 ②・③・⑤・⑥・⑨이다. 또한 서명의 경우 선승들에 의하여 저작된 <序>와 <後序>에는 『碧巖錄』으로, 거사・문인들에 의하여 저작된 <序>와 <後序>에는 『碧巖集』으로 기록되어 있다.

3. 『碧巖錄』의 編纂・初刊과 焚毀・重刊

『碧巖錄』의 편찬과 초간 및 분쇄와 중간 등에 관한 전후의 사정은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에 수록되어 있는 9편의 <序>와 <後序>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9편의 <序>와 <後序> 중에서 ①・⑤는 초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짐작되며, ②・③・④・⑥・⑦・⑧・⑨는 중간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3.1 『碧巖錄』의 編纂과 初刊

『碧巖錄』을 편찬하는 저본으로 사용된 『雪竇頌古』는 북송조의 雪竇禪師가 浙江省 明州의 雪竇山 資聖寺에 머물면서 公案 100칙을 엄선하여 頌을 붙인 것이나, 禪師가 100칙을 선취한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다.

佛果禪師가 『雪竇頌古』의 각칙에 垂示・着語・評唱을 부가한 강설의 내용을 집록한 『碧巖錄』의 구조는 대체로 ① 佛果禪師의 垂示,²⁷⁾ ② 雪竇禪師의 本則,²⁸⁾ ③ 佛果禪師의 本則評唱,²⁹⁾ ④ 雪竇禪師의 頌,³⁰⁾ ⑤ 佛果禪師의 頌評唱³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親交가 두터웠다. 만년에 낙향하여 詩書와 저술에 전념하였으며 文思도 敏捷하였다. 저술로는 『居庸賦』・『十八公賦』・『華清古樂府』・『海粟詩集』 등이 전하며, 散曲으로 저명하다.

27) 垂示(鈞語): 佛果禪師의 公案에 대한 총평으로, 선사가 수행자에게 주는 敎訓・訓示 또는 話頭를 강설할 때 먼저 그 요점을 제시하는 序文이다.

28) 本則: 雪竇禪師의 本則公案으로, 禪語錄에서 수행자들에게 규범이 되거나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조사들의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문답・언행에 대하여 해설・비평의 대상으로 엄선한 百古則이다.

29) 本則評唱: 雪竇禪師의 本則公案을 佛果禪師가 評唱한 문장이다.

30) 頌: 雪竇禪師가 本則을 偈頌의 형태로 읊은 頌古이다.

31) 頌評唱: 雪竇禪師의 頌古를 佛果禪師가 評唱한 문장이다.

3.1.1 「碧巖錄」의 編纂

「碧巖錄」은 佛果禪師가 四川省 成都의 昭覺寺와 湖南省 夾山の 靈泉院 및 湘西의 道林寺 등에 강설할 때 수많은 문도·학인들이 군집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한 住處의 강설만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내용의 수요도 높아지자 비로소 「碧巖錄」의 편찬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에 수록된 ①·②·③·④의 <四序>와 ⑤·⑥·⑦·⑧·⑨의 <五後序>를 통하여 볼 때, 「碧巖錄」은 雪竇禪師와 佛果禪師의 노파심을 동기³²⁾로 佛果禪師가 成都와 夾山 등에 주지하며 「雪竇頌古」를 評唱하여 강설한 내용³³⁾을 중심으로 문도들이 20여 년이나 掇拾하여 기록한 것³⁴⁾을 저본으로 늦어도 宣和 7년(1125) 무렵에는 편찬이 완료되었던 것³⁵⁾으로 짐작된다. 이는 宣和 7년(1125) 3월에 저작된 關友無黨의 <後序>에서 ① 佛果禪師가 成都에 주석할 때에 처음으로 제창한 뒤로 ② 夾山과 道林으로 옮겨서 강설하기까지 전후 3차에 걸쳐 宗綱을 提到하였고 ③ 3차의 강설은 住處마다 話法은 달랐으나 그 요지는 동일하였으며 ④ 기록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어도 ⑤ 선사께서는 이러한 일에 전혀 간여하지 않아 사본이 광범하게 유전되던 끝에 錯亂에까지 이르고 말았음³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碧巖錄」은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계획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佛果禪師가 成都의 昭覺寺와 湖南 夾山の 靈泉院 및 湘西의 道林寺 등에 주지하면서 口語와 俗語를 종횡무진으로 구사하여 「雪竇頌古」를 강설하며 수행자들을 일깨우며 禪風을 드날릴 때에 그 문도들에 의하여 20여 년에 걸쳐 장소를 달리하며 서서히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佛果禪師가 부정적·역설적인 표현의 遮詮方式³⁷⁾으로 일체의 사랑과 분별을 초월하여 자기의 본래면목을 일순간에 개오할 수 있도록 강설하자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은 물론 작은 몸짓 하나조차 빠짐없이 기록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강설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필사된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佛果禪師가 이러한

32) ② “... 雪竇圓悟 老婆心切 ...”

33) ③ “... 碧巖集者 圓悟大師之所述也 ...”, ④ “... 圓悟顧念子孫之心多 故重拈雪竇頌 ...” ⑥ “... 雪竇頌古百則 圓悟重下注脚 ...”, ⑦ “... 圓悟老祖 居夾山時 集成此書 ...”, ⑧ “... 圓悟禪師評唱雪竇和尚頌古一百則 ...”, ⑨ “... 成都佛果圓悟老禪 笏夾山丈室 拈提雪竇頌古百則 ...”

34) ⑤ “... 門人掇而錄之 既二十年矣 ...”, ① “普照幸親師席 得聞未聞 道友集成簡編 鄙拙敘其本末 時建炎戊申(1128)暮春晦日 參學嗣祖比丘普照謹序.”

35) ⑤ “... 圓悟老師 在成都時 予與諸人 請益其說 師後住夾山道林 復爲學徒扣之 凡三提宗綱 語雖不同 其旨一也 門人掇而錄之 既二十年矣 師未嘗過而問焉 ... 宣和乙巳(1125)春暮上休 物人關友無黨記.”

36) “雪竇頌古百則 聚林學道 詮要也 其間 取譬經論 或儒家文史 以發明此事 非具眼宗匠 時爲後學 擊揚剖析 則無以知之 圓悟老師 在成都時 予與諸人請益其說 師後住夾山道林 復爲學徒扣之 凡三提宗綱 語雖不同 其旨一也 門人掇而錄之 既二十年矣 師未嘗過而問焉 流傳四方 或致踳駁 諸方 且因其言以其道不能尋繹之 而妄有改作 則此書遂廢矣 學者幸緝其傳焉 宣和乙巳春暮上休 牟人關友無黨記.”

37) 遮詮: 對象의 本質을 부정적·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대상의 본질을 긍정적·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表詮이라 한다. 예를 들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는 표현은 遮詮이며, ‘마음이 곧 부처이다(即心是佛)’는 표현은 表詮에 해당된다.

일에 전혀 간여하지 않아 寫本이 광범하게 유전되다가 끝내는 錯亂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기록에 서도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碧巖錄』의 제명에 ‘碧巖’이라는 지명이 삽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碧巖錄』은 佛果禪師가 湖南省 夾山の 靈泉院에서 『雪竇頌古』를 강설할 당시 그곳의 문도들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⁸⁾

3.1.2 『碧巖錄』의 初刊

『碧巖錄』의 初刊時期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佛果禪師(1063-1135)의 생전인 宣和 7년(1125)에 저작된 關友無黨의 <後序>와 建炎 2년(1128)에 저작된 普照禪師의 <序> 등의 저작시기로 미루어 볼 때, 『碧巖錄』은 宣和 7년(1125) 무렵에 편찬이 완료되고 初刊의 役事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普照禪師의 <序>에 “다행히도 스승님과 한 자리에서 聽聞하지 못하였던 것을 청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道友들이 서적의 형태로 편찬함에 그 본말을 기록하는 바이다.”³⁹⁾고 한 바와 같이, 당시 『碧巖錄』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자 佛果禪師의 문도들은 이에 부응하여 여러 사본을 편집하여 서적의 형태로 편찬하고 나아가 그 간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북송조의 靖康年間(1126-1127)에는 徽宗과 欽宗의 실정을 비롯하여 신흥하는 金朝의 계속적인 침입으로 정세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특히 徽宗과 欽宗이 金朝에 포로로 끌려가고 수도인 開封도 함락되어 북송조가 망하고 남송조가 開朝되는 靖康의 大變⁴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기에 『碧巖錄』의 편찬과 간행이 畢役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이미 편찬과 간행의 役事가 진행되었더라도 필역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碧巖錄』의 초간은 북송조 徽宗의 宣和 7년(1125)에 착수하여 북송조가 멸망하는 국가적 위기로 중단과정을 거친 후 남송조 高宗의 建炎 2년(1128)에 이르러 비로소 초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傍證으로는 우선 佛果禪師의 賜號使用의 문제⁴¹⁾로 만약 『碧巖錄』이 比丘普照의 <序>가 저작된 宣和 7년(1125)에 초간이 되었다면 ‘佛果’라는 賜號는 사용될 수 있어도 ‘圓悟’라는 사호는

38) 『碧巖錄』의 ‘碧巖’은 佛果禪師가 湖南省 夾山の 靈泉院에 주지할 때 方丈室을 ‘碧巖’으로 扁額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靈泉院을 始創한 唐朝의 夾山善會(805-881)가 이곳을 “원숭이가 새끼를 품고 푸르고 가파른 봉우리로 들어가며, 새가 꽃을 물고와 푸른 바위샘에 떨어뜨리네.(猿抱子歸 青嶂嶺 鳥銜花落碧岩泉)”라는 偈頌에서 由來된 것이라 한다.

39) 宣和 7年 普照幸親師席 得聞未聞 道友集成簡編 鄙拙敘其本末 時建炎戊申暮春晦日 參學嗣祖比丘普照謹序.”

40) 靖康의 大變: 北宋朝의 靖康年間(1126-1127)에 북송조가 女眞族의 金朝에 함락되어 수도 開封과 정치적 중심지였던 華北을 잃고 徽宗과 欽宗을 비롯한 수천 명이 북으로 포로된 사건이다.

41) 佛果禪師의 賜號: 佛果禪師는 북송조 政和 4년(1114)에 徽宗에 의하여 ‘佛果’로 賜號되고 남송조 建炎 원년(1127) 10월에 高宗에 의하여 ‘圓悟’로 賜號되었으며, 선사가 입적한 紹興 6년(1136) 3월에는 高宗에 의하여 ‘眞覺’의 諡號가 하사된 바 있다.

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나 宣和 7년(1125)에 저작된 關友無黨의 <後序>에는 ‘圓悟’라는 사호가 사용되고⁴²⁾ 있는 바, 이는 建炎 2년(1128)의 초간에 이르러 전년(1127) 10월에 새로이 사호된 ‘圓悟’라는 사호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佛果禪師의 제자들이 『碧巖錄』의 편찬과 간행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문제로 현존하는 『碧巖錄』에 佛果禪師의 제자인 大慧禪師나 虎丘紹隆(1077-1136) 선사 등의 <序>나 <後序>가 없을 뿐 아니라 여타의 그 어떤 문헌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시 大慧禪師⁴³⁾나 虎丘禪師 등의 제자들은 선사가 주지한 湖南省 夾山の 靈泉院에 함께 머물지 않았거나 또는 스승인 佛果禪師와는 修禪의 방법에 있어 그 견해를 달리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碧巖錄』의 焚毀事件과 전혀 관련이 없지도 않은 듯하다.

현재 초간본이 전래되지 않아 초간 당시의 題名과 권수는 알 수 없으나 題名은 단순히 『碧巖錄』 또는 『碧巖集』이 아니었을까 하며, 佛果禪師가 강설하던 당시는 물론 입적한 후에도 『碧巖錄』의 인기와 수요가 점차 높아지자 이에 편승한 세간의 상업적인 坊刻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3.2 『碧巖錄』의 焚毀와 重刊

9篇의 <序>와 <後序> 중에서 ①·⑤를 제외한 나머지 ②·③·④의 <序>와 ⑥·⑦·⑧·⑨의 <後序> 등에는 모두 『碧巖錄』의 분쇄와 張明遠의 중간 사실에 관한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3.2.1 『碧巖錄』의 焚毀

『碧巖錄』은 紹興 10년(1140)을 전후로⁴⁴⁾ 佛果禪師의 대제자인 大慧禪師에 의하여 분쇄되는 一大事件이 발생하였다.

大慧禪師는 12세 무렵에 東山 慧雲院에서 慧雲齊(1051-1101)法師를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17세에 具足戒를 받고 처음에는 曹洞宗의 문하에서 수행을 하였으나, 전승을 중시하는 조동종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고 21세에 臨濟宗 黃龍派의 湛堂文準(1061-1115) 선사의 제자가 되었다. 湛堂禪師는 입적하기 전에 선사에게 臨濟宗 楊岐派의 佛果禪師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당시 佛果禪師가 泗川省 昭覺寺에 머무르고 있어 미처 參謁하지 못하다가, 36세이던 宣和 6년(1124)에 開封의 天寧寺에서 비로소 佛果禪師를 참알하고 가르침을 받아 이듬해(1125)에 開悟한

42) ⑤ “... 圓悟老師 在成都時 予與諸人 請益其說 師後住夾山道林 復爲學徒扣之 凡三提宗綱 語雖不同 其旨一也 ... 宣和乙巳(1125)春暮上休 牟人關友無黨記.”

43) 大慧禪師는 宣和 6년(1124) 36세 때에 佛果禪師를 처음으로 參謁하고 이듬해(1125)에 得道하였으며, 12년간 佛果禪師를 侍奉하였다.

44) 大慧禪師가 浙江省 徑山の 能人禪院에 머무른 紹興 7년(1137) 무렵부터 紹興 11년(1141) 무렵에 반역을 모의한 혐의를 받아 僧籍에서 제명되고 衡州로 유배되기 이전의 시기로 짐작된다.

뒤 臨濟宗 楊岐派의 제5대 傳人이 되었다.

大慧禪師는 禪風을 진작하는 과정에서 사대부들과 폭넓게 교유하고 金朝와의 전쟁에서 主戰派의 주요인물로 활동하였으며, 靖康 원년(1126)에는 欽宗에 의하여 ‘佛日’의 호가 하사되었다. 이 무렵 曹洞宗의 宏智正覺(1091-1157) 선사가 明州의 天童寺에 주지하며 ‘默照禪’⁴⁵⁾을 창도하여 30여 년간 修禪의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나, 禪師는 福州에 들어가 전란 중임에도 ‘默照禪’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紹興 5년(1135)에 스승인 佛果禪師가 입적한 뒤 紹興 7년(1137)에 金朝와의 主戰抗爭을 이끌던 張俊(1086-1154)의 요청으로 浙江省 徑山의 能人禪院에 머무르며 학인들을 교도하여 宗風이 크게 진작되었다. 그러나 紹興 11년(1141)에 高宗의 신임을 받던 宰相 秦檜(1090-1155)가 主戰派를 배척하면서 선사도 이듬해(1142)에 張九成(1092-1159) 등과 반역을 모의한 혐의를 받아 僧籍에서 제명되고 衡州로 유배되었으며, 紹興 20년(1150)에는 다시 梅州로 유배되었다. 流配期間에 선사는 스승의 語錄을 모아 『正法眼藏』을 편찬하였다.

紹興 25년(1155)에 秦檜의 사망으로 사면되어 杭州로 돌아와 靈隱寺에 머무르다가 소흥 27년(1157)에 張俊의 천거로 다시금 徑山寺의 주지가 되었으며, 이 무렵에 曹洞宗의 宏智禪師와 禪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며 ‘看話禪’⁴⁶⁾을 제창하였다. 紹興 29년(1159)에 浙江省 四明山의 育王寺로 거처를 옮겼으나 조정의 요청으로 다시금 徑山으로 갔으며, 紹興 31년(1161)에 徑山에서 明月堂을 세우고 은거하다가 隆興 원년(1163) 孝宗으로부터 ‘大慧’라 賜號되고 동년(1163) 8월에 明月堂에서 74세로 입적하자 ‘普覺’의 諡號와 ‘寶光’의 塔號가 하사되었다.

『碧巖錄』은 처음 간행되면서부터 당시 학인들의 대환영 속에 진중하게 수용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조식으로 誦習하여 ‘學’의 경지로 숭앙될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修禪의 방법은 敎外別傳을 宗旨로 삼는 禪宗의 禪觀에 위배되어 마침내 紹興 10년(1140)을 전후로 大慧禪師에 의하여 『碧巖錄』의 焚毀事件이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大慧禪師가 『碧巖錄』을 분쇄한 정황에 관하여 ②에는 “大慧禪師는 一舉에 焚毀하였다.”⁴⁷⁾, ③에는 “그[佛果禪師]의 제자인 大慧禪師가 焚毀하였다.”⁴⁸⁾, ④에는 “大慧禪師는 [자손들이] 불에 탈까 물에 빠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서 『碧巖集』을 焚毀하였다.”⁴⁹⁾, ⑥에는 “大慧禪師의 분쇄는 權道이다.”⁵⁰⁾, ⑦에는 “妙喜老師가 수행자들이 道에 근본하지 않고 지식에만 빠질 것을 염려하여 焚毀하

45) 默照禪: 天童山에 머무른 曹洞宗의 宏智正覺 선사 문하의 禪法으로 모든 생각을 끊고 묵묵히 坐禪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淸淨한 성품을 포착하는 수행이다.

46) 看話禪: 坐禪하여 하나의 話頭의 의심을 깨뜨리기 위하여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으로 臨濟宗 楊岐派의 大慧禪師가 큰 의심 아래에서만 깨달음이 있다고 하여 話頭와 정면으로 대결할 것을 역설한 이후 禪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집중의 수행은 話頭의 타파로 압축되어 중국 禪宗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47) ② “... 大慧已一炬丙之矣 ...”

48) ③ “... 其大弟子大慧禪師 乃焚棄其書 ...”

49) ④ “... 大慧救焚拯溺之心多 故立毀碧巖集 ...”

50) ⑥ “... 大慧密室勘辨 知無實詣 毀梓不傳 權也 ...”

였다.”⁵¹⁾, ⑧에는 “大慧禪師께서는 … 후학들이 근본을 밝히지 못하고 연구어절을 숭상하여 巧語만을 도모하므로 이를 분쇄하여 그 폐단에서 구하려 하였다.”⁵²⁾, ⑨에는 “그[佛果禪師]의 제자인 宗杲上座가 학인들이 연구에만 빠져 옛 조사들의 가르침을 저버릴까 염려하여 스승의 말씀을 모두 焚毀하자 연기와 함께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⁵³⁾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상으로 볼 때, 大慧禪師는 紹興 10년(1140)을 전후하여 『碧巖錄』이 문도와 학인들을 미혹시킬 것을 염려하여 『碧巖錄』과 관련된 일체의 寫本·版本·木板 등을 焚毀하는 一大事件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碧巖錄』이 편찬된 지 15년, 초간된 지 12년, 스승인 佛果禪師가 입적한 지 5년, 大慧禪師 자신이 입적하기 2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결과 현재 『碧巖錄』의 초간본은 전해지는 것이 없어 당시의 정확한 題名이나 간행시기 및 형태서지적인 내용 등은 거의 알려진 바 없으며, 다만 寶慶 3년(1227)에 일본의 僧侶 道元の 사본⁵⁴⁾과 延祐 4년(1317)에 張明遠에 의하여 중간된 판본 및 이를 저본으로 하여 후대에 간행된 판본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3.2.2 『碧巖錄』의 重刊

張明遠이 『碧巖錄』을 重刊한 상황에 관하여 ②에는 “嶠中の 張明遠이 타고 남은 재(灰) 속에서 다시금 목판으로 간행하였다.”⁵⁵⁾, ③에는 “나는 이 서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嶠中の 張明遠이 다시금 목판에 판각을 시작하며 나에게 함께 도모할 것을 종용하여 와서 協贊하여 완성하고 그 서문까지도 쓴다.”⁵⁶⁾, ④에는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에 嶠中の 張明遠이 목판으로 새겨 길이 전하게 된 데에는 … 그 由緒가 매우 깊다.”⁵⁷⁾, ⑥에는 “200년 동안 碧巖과 雪竇를 볼 수 없었던 것은 홀연 그 수하에서 분쇄된 때문이었으나 어찌 그 전승까지도 단절될 수 있을 것이겠는가! … 옛적에 분쇄되었으나 지금 復興시키려 한다.”⁵⁸⁾, ⑦에는 “지금 辱中の 張明遠이 목판으로 중간하니 과연 뭐라 하여야겠는가!”⁵⁹⁾, ⑧에는 “辱中の 張明遠이 우연히 雪堂刊本과 蜀本을 구하게 되어 그 訛舛을 校訂한 뒤에 간행하여 만고에 유통되도록 하였다.”⁶⁰⁾, ⑨에는 “辱中

51) ⑦ “… 老妙喜 深患學者 不根於道 溺於知解 由是毀之 ….”

52) ⑧ “… 大慧禪師 … 因慮其後不明根 專尚語言以圖口捷 由是火之以救斯弊也 ….”

53) ⑨ “… 其大弟子 杲上座 懼學人泥於言句 辜負從上諸祖 取老和尚舌頭 一截並付烈焰 煙而揚之拉搥堆 ….”

54) 道元の 寫本: 『碧巖錄』이 建炎 2년(1128)에 初刊된 지 100년이 지난 南宋朝 理宗의 寶慶 3년(1227) 겨울에 일본의 유학승 道元이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날 하룻밤을 꼬박 세워 道林寺本을 필사하였다는 일명 ‘一夜本’으로 원명은 ‘佛果碧巖破關擊節’이다. 그러나 一夜本에는 제명에 ‘佛果’라는 賜號만 사용되고 있어 필사의 저본은 建炎 2년(1128)에 초간된 雪堂刊本(道林寺本)이 아니라 北宋朝의 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 듯하다.

55) ② “… 嶠中張偉明遠 燃死灰復板行 ….”

56) ③ “… 自吾聞有是書 求之甚至 嶠中張氏 始更刻木 來謀於予 遂贊而成之 且爲題其首 ….”

57) ④ “… 爾來二百餘年 嶠中張明遠 復鏤梓 以壽其傳 … 然是書之行 所關甚重 ….”

58) ⑥ “… 二百年不見碧巖雪竇 忽遭渠手下一交 怎記得弓冶裘箕 … 昔之廢今之興 ….”

59) ⑦ “… 今辱中張居士重爲板行 果何謂哉 ….”

60) ⑧ “… 辱中張明遠 偶獲雪堂刊本及蜀本 校訂訛舛 刊成此書 流通萬古 ….”

의 張明遠이 관각에 착수하자 [분쇄한 목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⁶¹⁾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表 1> 「碧巖錄」 編纂 및 諸 版本의 系譜⁶²⁾

時期	主要 內容
1052年 以前	雪竇禪師「雪竇頌古百則」編纂 (底本: 「景德傳燈錄」·「祖堂集」·「古記錄」等)
1105年頃	佛果禪師「雪竇頌古」提綱 및 講說 (1105年 以後 20餘年間 寫本 流通)
1105-1125 年頃	成都 寫本 (四川省 成都 昭覺寺) — 夾山 寫本 (湖南省 夾山 靈泉院) — 湘西 道林寺 寫本 (湖南省 湘西 道林寺) — 其他 寫本 (太平興國寺·道場寺·萬壽寺·金山寺 等)
1125-1128 年頃	「碧巖錄」編纂 (底本: 道林寺 寫本)
1128年頃	雪堂「碧巖錄」初刊 (底本: 道林寺 寫本)
1129-1136 年頃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古興所藏 刊本)(底本: 蜀[寫]本) — 其他 刊本 (推定: 寺刹刻本·坊刻本 等)
1140年 前後頃	大慧禪師「碧巖錄」焚毀 (流通 寫本·刊本·木板 等 一切)
1227年頃	一夜本「佛果碧巖破關擊節」 (日本 留學僧 道元 道林寺寫本 謄寫)
1300-1316 年頃	張明遠「佛果圓悟禪師碧巖錄」重刊 準備 및 板刻 (底本: 焚毀後 雪堂刊本·蜀[寫]本·其他 寫本)
1317年	張明遠「碧巖錄」重刊 完了 (張明遠 私刊本)(協贊: 周馳)
1317年 以後代	明朝 刊本 (洪武 24(1391) 刊本 等) — 朝鮮朝 乙酉銅活字刊本 (世祖 11(1465)·三省博藏本) — 倭朝 不二鈔本 (岐陽方秀(1361-1424) 寫本)
	清朝 刊本 (光緒 2(1876) 刊本 等) — 朝鮮朝 乙酉銅活字本翻刻本 (中宗 21(1526)年·深原寺藏本) — 倭朝 瑞龍寺本 (文明年間(1469-1487) 刊本)

61) 9 “... 辱中張居士 手栽無影樹子上 全體敗露 ...”

62) 본 <表>는 筆者의 淺見을 바탕으로 諸家의 연구를 종합하여 圖表化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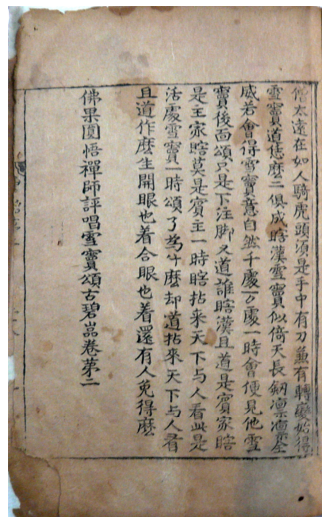
이는 일반적으로 序文의 저작시기가 서적의 편찬 및 간행시기와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跋文 또는 後序의 찬술시기가 편찬 및 간행시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序文은 서적의 편찬과 간행을 준비하면서 미리 著名人士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跋文은 서적의 편찬을 완료하고 간행하기 직전에 著名人士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⑧希陵禪師의 <後序>에 수록된 “辱中の 張明遠이 우연히 雪堂刊本과 蜀本을 구하게 되어 그 訛舛을 校訂한 뒤에 간행하여 만고에 유통되도록 하였다.”⁶³⁾는 표현은 張明遠이 雪堂刊本과 蜀[寫]本을 저본으로 訛舛을 校訂한 뒤 大德 4년(1300) 무렵에 중간을 위한 定稿本과 板下本을 제작하고 중간에 착수하여 延祐 4년(1317) 무렵에 畢役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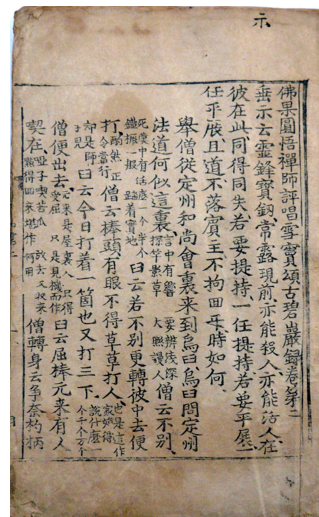
다만 重刊의 底本으로 사용된 雪堂刊本은 道林寺의 사본을 저본으로 간행된 初刊本을 지칭함에 틀림이 없는 듯하며, 蜀本⁶⁴⁾은 趙大師房眞本을 지칭하는 사본이 아닌가 한다.

4. 古興藏本 「碧巖錄」

古興藏本 「碧巖錄」 제2권의 書影은 다음과 같다.



〈卷2〉 卷尾面



〈卷2〉 卷頭面

<寫眞 1> 古興藏本 「碧巖錄」 第2卷의 書影

63) ⑧ “... 辱中張明遠 偶獲雪堂刊本及蜀本 校訂訛舛 刊成此書 流通萬古 ...”

64) 蜀本: ‘福本’이라고도 하며 成都府 大聖慈寺 白馬院 三聖堂에서 간행된 ‘趙大師印本’ 또는 ‘趙大師房眞本’이라 하나 寫本이 아닌가 한다. <① 李豐園, “『碧巖錄』 研究,” (碩士學位論文, 上海師範大學, 2004; ② 末木文美士, “『碧巖錄』의 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第18號(1995), 51-81.>

古興藏本「碧巖錄」은 序와 跋文(後序) 등이 없는 제2권 1책만이 잔존하는 ‘零本’이다.

古興藏本「碧巖錄」의 구성과 특징 등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雪堂刊本이나 蜀[寫]本 등이 전존하지 않아 절대적 비교·검토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張明遠 重刊本「碧巖錄」과의 간접적 비교·검토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4.1 古興藏本の 構成과 內容

古興藏本「碧巖錄」 제2권에 수록된 편성의 체제와 내용을 張明遠 重刊本の「碧巖錄」과 대비·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卷2의 編成과 內容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碧巖錄」(張明遠 重刊本)		
則次	構成	內容	面次	則次	構成	內容
[第01則]	垂示	靈鋒寶劔 … 牙時如何	01A02-01A04		垂示	靈鋒寶劔 … 何試與看
	本則	僧從定 … (什麼處)	01A05-01B08	第75則	本則	僧從定 … (麼處去)
	本則評唱	僧從定州 … 麼地頌出	01B09-03A03		本則評唱	僧從定州 … 麼地頌出
	頌	呼即易 … (什麼處)	03A04-01A09		頌	呼即易 … (什麼處)
	頌評唱	呼即易遣 … 是大無端	03A10-04B01		頌評唱	呼即易遣 … 是太無端
[第02則]	垂示	單提獨弄 … 麼試舉看	04B02-04B04		垂示	單提獨弄 … 麼試舉看
	本則	龐居士 … (裏了也)	04B05-05A03	第42則	本則	龐居士 … (裏了也)
	本則評唱	龐居士參 … 他打處云	05A04-05B08		本則評唱	龐居士參 … 他打處云
	頌	雪團打 … (坑埋却)	05B09-06A01		頌	雪團打 … (坑埋却)
	頌評唱	雪團打雪 … 說个什麼	06A02-06B02		頌評唱	雪團打雪 … 說箇什麼
[第03則]	垂示	細如米末 … 身處也無	06B03-06B05		垂示	細如米末 … 無試舉看
	本則	丹霞問 … (不迭店)	06B06-07A04	第76則	本則	丹霞問 … (不迭店)
	本則評唱	鄧州丹霞 … 用此意頌	06A05-08A11		本則評唱	鄧州丹霞 … 用此意頌
	頌	盡機不 … (天蒼天)	08B01-08B05		頌	盡機不 … (天蒼天)
	頌評唱	盡機不成 … 間同陸沈	08B06-09A04		頌評唱	盡機不成 … 間同陸沈
[第04則]	垂示	攬旗奪鼓 … 怎麼奇特	09A05-09A06		垂示	攬旗奪鼓 … 怎麼奇特
	本則	僧問藥 … (作何用)	09A07-09B02	第81則	本則	僧問藥 … (作何用)
	本則評唱	洞下謂之 … 佗語頌云	09B03-10B10		本則評唱	這公案洞 … 他語頌云
	頌	塵中塵 … (喉了也)	10B11-11A05		頌	塵中塵 … (喉了也)
	頌評唱	塵中塵君 … 時起不得	11A06-11B05		頌評唱	塵中塵君 … 時起不得
[第05則]	垂示	高高峰頂 … 生試舉看	11B06-11B08		垂示	高高峰頂 … 生試舉看
	本則	劉鐵磨 … (機而作)	11B09-12A01	第24則	本則	劉鐵磨 … (機而作)
	本則評唱	劉鐵磨如 … 方是作家	12A02-13A02		本則評唱	劉鐵磨如 … 方是作家
	頌	曾騎鐵 … (作什麼)	13A03-13A05		頌	曾騎鐵 … (作什麼)
	頌評唱	雪竇頌諸 … 雪竇同也	13A06-13B08		頌評唱	雪竇頌諸 … 雪竇同也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碧巖錄』(張明遠 重刊本)		
則次	構成	內容	面次	則次	構成	內容
[第06則]	垂示	佛祖大機 … 曾怎麼來	13B09-13B11		垂示	佛祖大機 … 麼試舉看
	本則	黃蘗示 … (蛇尾漢)	14A01-14A05	第11則	本則	黃蘗示 … (蛇尾漢)
	本則評唱	黃蘗身長 … 却了也頌	14A06-15B11		本則評唱	黃蘗身長 … 穿却了也
	頌	凜凜孤 … (皆乞命)	16A01-16A03		頌	凜凜孤 … (處乞命)
	頌評唱	雪竇此一 … 底麼便打	16A04-17A09		頌評唱	雪竇此一 … 底麼便打
[第07則]	垂示	要道便道 … 試請舉看	17A10-17B01		垂示	要道便道 … 道試舉看
	本則	僧問趙 … (腳跟下)	17B02-17B05	第45則	本則	僧問趙 … (腳跟下)
	本則評唱	若向一擊 … 處故頌云	17B06-18A10		本則評唱	若向一擊 … 與爾頌出
	頌	編辟曾 … (子親得)	18A11-18B02		頌	編辟曾 … (子親得)
	頌評唱	十八問中 … 椽下看取	18B03-19B01		頌評唱	十八問中 … 椽下看取
[第08則]	[垂示]	[魚行水] … [試舉看]			[垂示]	[魚行水] … [試舉看]
	本則	僧問趙 … (過薪羅)	19B02-19B03	第30則	本則	僧問趙 … (與往來)
	本則評唱	這僧也是 … 崙吞个棗	19B04-20A07		本則評唱	這僧也是 … 崙吞箇棗
	頌	鎮州出 … (也裂轉)	20A08-20A11		頌	鎮州出 … (也裂轉)
	頌評唱	鎮州出大 … 大蘿蔔頭	20B01-20B09		頌評唱	鎮州出大 … 大蘿蔔頭
[第09則]	垂示	明鏡臨臺 … (試舉看)	20B10-21A02		垂示	明鏡當臺 … (試舉看)
	本則	僧問趙 … (麼便打)	21A03-21A05	第09則	本則	僧問趙 … (麼便打)
	本則評唱	大凡參問 … 看雪竇頌	21A06-23A02		本則評唱	大凡參禪 … 取雪竇頌
	頌	句裏呈 … (搥不到)	23A03-23A05		頌	句裏呈 … (到開也)
	頌評唱	趙州臨機 … 請參詳看	23A06-23B11		頌評唱	趙州臨機 … 請參詳看
[第10則]	垂示	乾坤窄日 … 直須究取	24A01-24A05		垂示	乾坤窄日 … 直須究取
	本則	趙州示 … (這老賊)	24A06-24B01	第02則	本則	趙州示 … (這老賊)
	本則評唱	趙州和尚 … 蹉過頌曰	24B02-25A11		本則評唱	趙州和尚 … 當面蹉過
	頌	至道無 … (山僧事)	25B01-25B06		頌	至道無 … (山僧事)
	頌評唱	雪竇知他 … 理會不得	25B06-27A10		頌評唱	雪竇知他 … 理會不得
[第11則]	垂示	未透得已 … 古人樣子	27A11-27B03		垂示	未透得已 … 古人樣子
	本則	僧問趙 … (瞪口呿)	27B04-27B08	第57則	本則	僧問趙 … (瞪口呿)
	本則評唱	僧問趙州 … 雪竇頌云	27B09-28A11		本則評唱	僧問趙州 … 雪竇頌云
	頌	似海之 … (你咽喉)	28B01-28B04		頌	似海之 … (爾咽喉)
	頌評唱	雪竇注兩 … 將問來問	28B05-28B10		頌評唱	雪竇注兩 … 當軒布鼓
[第12則]	[垂示]	[未透得] … [人樣子]			[垂示]	[未透得] … [人樣子]
	本則	僧問趙 … (上鐵牛)	28B11-29A02	第58則	本則	僧問趙 … (咬鐵牛)
	本則評唱	趙州平生 … 靠山頌云	29A03-29B04		本則評唱	趙州平生 … 靠山頌云
	頌	象王嘸 … (時活埋)	29B05-29B07		頌	象王嘸 … (時活埋)
	頌評唱	趙州道曾 … 在什麼處	29B08-29B11		頌評唱	趙州道曾 … 在什麼處
[第13則]	垂示	該天括地 … 便得怎麼	30A01-30A02		垂示	該天括地 … 麼試舉看
	本則	僧問趙 … (敗了也)	30A03-30A07	第59則	本則	僧問趙 … (敗了也)
	本則評唱	趙州道只 … 雪竇頌云	30A08-30B11		本則評唱	趙州道只 … 雪竇頌云
	頌	水洒不 … (可使打)	31A01-31A04		頌	水灑不 … (可使打)
	頌評唱	水洒不着 … 細著眼看	31A05-31A11		頌評唱	水灑不著 … 細著眼看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碧巖錄』(張明遠 重刊本)		
則次	構成	內容	面次	則次	構成	內容
[第14則]	[垂示]	[大用現] … [試舉看]			[垂示]	[大用現] … [試舉看]
	本則	僧問趙 … (葛藤漢)	31B01-31B04	第80則	本則	僧問趙 … (葛藤漢)
	本則評唱	此六識教 … 雪竇頌云	31B05-33B08		本則評唱	此六識教 … 雪竇頌云
	頌	六識無 … (下接取)	31B09-33B11		頌	六識無 … (下接取)
	頌評唱	六識無功 … 在什麼處	34A01-34A09		頌評唱	六識無功 … 在什麼處
[第15則]	[垂示]	[大用現] … [試舉看]			[垂示]	[大用現] … [試舉看]
	本則	趙州示 … (段不同)	34A10-34A10	第96則	本則	趙州示 … (段不同)
	本則評唱	趙州示此 … 許你罷參	34A11-34B06		本則評唱	趙州示此 … 許爾罷參
	頌	泥佛不 … (梨便是)	34B07-34B09		頌	泥佛不 … (梨便是)
	頌評唱	泥佛不渡 … 他雪竇頌	34B10-36A05		頌評唱	泥佛不渡 … 他雪竇頌
	[垂示]	[大用現] … [試舉看]			[垂示]	[大用現] … [試舉看]
	本則	金佛不渡 … (下漫二)	36A06-36A08		本則	金佛不渡 … (下漫漫)
	本則評唱	金佛不渡 … 方見頌云	36A09-36B06		本則評唱	金佛不渡 … 方見頌云
	頌	木佛不 … (人手裏)	36B07-36B10		頌	木佛不 … (人手裏)
	頌評唱	木佛不渡 … 親切處也	36B11-37B07		頌評唱	木佛不渡 … 親切處也
[第16則]	[垂示]	[纔有是] … [試舉看]			[垂示]	[纔有是] … [試舉看]
	本則	僧問趙 … (不再活)	37B08-37B11	第52則	本則	舉僧問 … (不再活)
	本則評唱	略約即是 … 雪竇頌云	38A01-38B01		本則評唱	略約即是 … 雪竇頌云
	頌	孤危不 … (則未是)	38B02-38B05		頌	孤危不 … (則未是)
	頌評唱	孤危不立 … 會試辨看	38B06-39A09		頌評唱	孤危不立 … 會試辨看
[第17則]	[垂示]	[定龍蛇] … [麼生辨]			[垂示]	[定龍蛇] … [麼生辨]
	本則	長沙一 … (狀領過)	39A10-39B05	第36則	本則	長沙一 … (狀領過)
	本則評唱	長沙鹿苑 … 便會頌云	39B06-40B01		本則評唱	長沙鹿苑 … 便會頌云
	頌	大地絕 … (可放過)	40B02-40B06		頌	大地絕 … (可放過)
	頌評唱	且道這公 … 地更深埋	40B07-41B01		頌評唱	且道這公 … 地更深埋
[第18則]	垂示	通身是眼 … 个什麼人	41B02-41B05		垂示	通身是眼 … 箇什麼人
	本則	雲巖問 … (爹作爺)	41B06-42A01	第89則	本則	雲巖問 … (爹作爺)
	本則評唱	雲巖與道 … 頭行頌云	42A02-43A01		本則評唱	雲巖與道 … 上行頌云
	頌	徧身是 … (作麼生)	43A02-43A09		頌	徧身是 … (作麼生)
	頌評唱	徧身是通 … 个咄字參	43A10-44B09		頌評唱	徧身是通 … 箇咄字參
[第19則]	垂示	一塵舉天 … 看取下文	44B10-45A02		垂示	一塵舉大 … 看取下文
	本則	俱𦵏和 … (人舌頭)	45A03-45A04	第19則	本則	俱𦵏和 … (人舌頭)
	本則評唱	若向指頭 … 禪來頌云	45A05-47A02		本則評唱	若向指頭 … 指頭禪來
	頌	對揚深 … (个瞎漢)	47A03-47A06		頌	對揚深 … (箇瞎漢)
	頌評唱	雪竇會四 … 堪作何用	47A07-47B07		頌評唱	雪竇會四 … 堪作何用
[第20則]	垂示	隱密全真 … 人處也无	47B08-47B10		垂示	隱密全真 … 無試舉看
	本則	道吾爲 … (較些子)	47B11-48B06	第55則	本則	道吾爲 … (較些子)
	本則評唱	道吾與漸 … 雪竇頌云	48B07-50A07		本則評唱	道吾與漸 … 雪竇頌云
	頌	冤馬有 … (在這裏)	50A08-50B02		頌	冤馬有 … (在這裏)
	頌評唱	雪竇徧會 … 却競頭爭	50B03-51A04		頌評唱	雪竇徧會 … 却競頭爭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古興藏本)				『佛果圓悟禪師碧巖錄』(張明遠 重刊本)		
則次	構成	內容	面次	則次	構成	內容
[第21則]	[垂示]	[東西不] … [試舉看]			[垂示]	[東西不] … [試舉看]
	本則	仰山問 … (去來人)	51A05-51A09	第34則	本則	仰山問 … (去來人)
	本則評唱	驗人端的 … 則不怎麼	51A10-52A05		本則評唱	驗人端的 … 則不怎麼
	頌	出草入 … (失後好)	52A06-52A11		頌	出草入 … (失後好)
	頌評唱	出草入草 … 有甚了曰	52B01-53A09		頌評唱	出草入草 … 有甚了曰
[第22則]	垂示	掀天開翻 … 麼請舉看	53A10-53B01		垂示	掀天開翻 … 麼請舉看
	本則	仰山問 … (定當看)	53B02-53B05	第68則	本則	仰山問 … (定當看)
	本則評唱	三聖是臨 … 雪竇頌云	53B06-55A02		本則評唱	三聖是臨 … 雪竇頌云
	頌	雙收雙 … (黑漫漫)	55A03-55A07		頌	雙收雙 … (黑漫漫)
	頌評唱	雙收雙放 … 人還知麼	55A08-55B08		頌評唱	雙收雙放 … 人還知麼
[第23則]	垂示	怎麼怎麼 … 有例攀例	55B09-56A02		垂示	怎麼怎麼 … 例試舉看
	本則	陸州問 … (在第二)	56A03-56A07	第10則	本則	陸州問 … (在第二)
	本則評唱	大凡扶豎 … 雪竇頌出	56A08-57A01		本則評唱	大凡扶豎 … 雪竇頌出
	頌	雨喝与 … (弟幾喝)	57A02-57A06		頌	雨喝与 … (第幾機)
	頌評唱	雪竇不妨 … 人免得麼	57A07-58A07		頌評唱	雪竇不妨 … 人免得麼

張明遠 重刊本『碧巖錄』은 10칙을 1권으로 도합 10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古興藏本『碧巖錄』 제2권의 경우 도합 23칙이 수록되어 있으며, 張明遠 重刊本에는 100칙의 각 본칙마다 則次番號가 부여되어 있으나 古興藏本『碧巖錄』에는 則次番號가 없다. 따라서『碧巖錄』의 則次番號는 張明遠 重刊本『碧巖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張明遠 重刊本과 古興藏本『碧巖錄』은 則次順序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古興藏本『碧巖錄』의 [제12칙]·[제17칙]·[제21칙] 등이 張明遠 重刊本에는 2칙으로 분할된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편성체제는 현재로서는 古興藏本『碧巖錄』이 유일한 경우이다.

수록내용에 있어서도 古興藏本『碧巖錄』에는 張明遠 重刊本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동일한 내용의 기록도 서로 다른 경우가 없지 않으며, 내용의 서술용어도 서로 다른 경우가 없지 않다. 아울러 古興藏本『碧巖錄』에는 張明遠 重刊本에 비하여 文字와 語句의 刪略이 있고 語順에도 변동이 있으며, 虛詞와 語氣詞 등의 생략은 물론 송조의 俗字를 사용한 경우도 많고 訛誤도 적지 않은 편이다.⁶⁵⁾

특히 張明遠 重刊本을 비롯한 후대의 모든『碧巖錄』의 판본에는 南송조 高宗(1127-1162)의 諱인 ‘構’가 ‘構’로 표기되고 있으나 古興藏本『碧巖錄』에는 “**構**”와 같이 독특하게 避諱되어 있다.⁶⁶⁾ 이는 張明遠 重刊本이 元朝의 간본인 반면 古興藏本『碧巖錄』은 南宋朝의 간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65) 徐時儀, “古興藏本刻本『碧巖錄』考,” 『文獻』 第4號(2016), 45-53.

66) 佛果克勤 著,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卷2. 張6A. 張7A.

4.2 古興藏本の 特徵과 價値

古興藏本『碧巖錄』의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제2권과 張明遠 重刊本『碧巖錄』의 서지적인 특징을 대비·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과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의 書誌的인 特徵

番號	事項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備考
01	書名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佛果圓悟禪師碧巖錄	
02	著者	[-]	師住澧州夾山靈泉禪院評唱	
		[-]	雪竇顯和尚頌古語要	
03	版種	木版本[初刻版]	木版本[重刻版]	
04	刊行地	[中國]	[中國]	
05	刊行處	[不明]	[峨中 張明遠家]	
06	刊行年	[延祐 4(1317) 以前]	[延祐 4(1317)]	
07	卷冊數	殘卷(卷2) 1冊(58張)	10卷 10冊	
08	序文	[不明]	四序	
09	避諱	構(構 06A0410, 07A0417)	[-]	
10	卷頭題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卷第二)	佛果圓悟禪師碧巖錄(卷第一)	
11	版心題	碧巖錄	碧巖錄	
12	邊欄	上下單邊·左右雙邊	四周雙邊	
13	半郭	19.4×13.6cm	[18.1×11.3cm]	
14	界線	無界	有界	
15	行字數	11行20-21字	11行21字	
16	註文	小字雙行	小字單行	
17	板口	白口	白口	
18	魚尾	上內向黑魚尾	上下下向·下內向黑魚尾	
19	刻手	‘日’·‘一’·‘又’·‘通’·‘眞’(版心下) ⁶⁷⁾	[不明]	
20	刻法	引刻	[引刻 推定]	
21	規格	26.6×18.2cm	[26.6×18.5cm]	
22	跋文	[不明]	五後序	
23	紙質	漢紙(桑紙)	[不明]	
24	裝訂	線裝(原四針眼訂 後改裝五針眼訂)	[線裝(四針眼訂)]	

古興藏本『碧巖錄』은 張明遠 重刊本에 비하여 書名·著者·刊行處(者)·刊行年度·卷冊數·序文·避諱·卷頭題·卷尾題·邊欄·半郭·界線·行字數·註文·魚尾·刻手·跋文·紙

67) 古興藏本の 경우 版心の 下部에 ‘日’(張01·02·11·13·22·25·34·39·40·49), ‘一’(張03·04·19·20·27·29·30·35·36·41·42·45·46·51·52·57·58), ‘又’(張09·44), ‘通’(張12), ‘眞’(張26) 등 刻手名の 略字가 새겨져 있으며, (張05·06·07·08·10·14·15·16·17·18·21·23·24·28·31·32·33·37·38·43·47·48·50·53·54·55·56) 등에는 刻手名の 기록이 없다.

質・裝訂 등 여러 사항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여러 사항의 차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古興藏本 『碧巖錄』은 張明遠 重刊本보다 간행시기가 앞서는 비교적 初期의 간행본으로 추정된다. 다만 古興藏本이 현전하지 않는 雪堂刊本 인지의 여부는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初期版本의 不在 및 古興藏本이 <序>와 <後序>가 없는 제2권의 1책만이 잔존하는 零本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佛果禪師는 일생동안 여러 사찰에 住持⁶⁸⁾한 바, 四川省 成都 昭覺寺와 湖南省 夾山寺 靈泉禪院 및 湖南省 湘西 道林寺 뿐만 아니라 太平興國寺・道場寺・萬壽寺・金山寺 등의 명찰에 서도 주지하며 강설한 바 있다. 그러므로 『碧巖錄』이 선사의 三大 住處에서만 필사・편찬・간행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여타의 住處에서도 당처의 강설을 바탕으로 필사・편찬・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아울러 『碧巖錄』의 폭발적인 인기에 편승하여 유전되던 사본을 취합・편찬하여 동시다발로 상업적인 坊刻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古興藏本 『碧巖錄』도 이러한 坊刻本 중의 하나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大慧禪師의 焚毀事件은 그가 臨濟宗 楊岐派 제5대 傳人으로서의 權威성과 勅命性에서 가능한 一大事件이었던 만큼, 그 후로 張明遠 중간본이 간행되기까지 『碧巖錄』은 전혀 간행되지 않았던 듯하다. 저간의 사정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분쇄사건 이후에 『碧巖錄』이 간행된 적이 있었다면 張明遠 중간본 『碧巖錄』의 ②의 “復板行”・③의 “始更刻木”・④의 “復鏤梓”・⑦의 “重爲板行” 등의 표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나, ⑥에서는 이미 “<重刊圓悟禪師碧巖集疏>”라는 ‘疏名’까지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 張明遠이 『碧巖錄』의 중간을 위하여 17년의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자료가 “雪堂刊本과 蜀[寫]本”⁶⁹⁾에 지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焚毀事件 이후에 『碧巖錄』이 간행된 적이 있었다면 완질의 자료를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 焚毀事件 이후에 『碧巖錄』이 간행된 적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기록이 전존될 것이나 현재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문헌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후의 『碧巖錄』의 간행에 관한 기록은 오직 張明遠 重刊本에 관련된 기록들뿐이기 때문이다.

(4) 焚毀事件 이후로 大慧禪師가 주창한 看話禪이 중국 禪宗의 정통으로 자리를 잡은 점과 선사가 황실과 사대부의 존숭을 받은 점 등을 통하여 짐작할 때, 남송조의 치세가 계속된 13세기 말기까지도 선사의 權威와 嚴命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⑧의 “張明遠의 두 아들이 心病을 앓자,

68) 佛果禪師는 崇寧 초년(1102)에 四川省 成都 昭覺寺에 처음으로 주지한 이래 湖南省 夾山寺 靈泉禪院(碧巖室), 政和 원년(1111)에 湖南省 湘西 道林寺, 政和 5년(1115)에 江蘇省 江寧 蔣山 太平興國寺, 政和 말년(1118)에 江蘇省 金陵 蔣山 道場寺, 宣和年間(1119-1125)에 河南省 京城 天寧 萬壽寺, 建炎年間(1127-1130)에 江蘇省 潤州 鎮江 金山寺, 紹興年間(1131-1135)에 다시금 四川省 成都 昭覺寺 등의 명찰에 주지하였다. <杜繼文・魏道儒, 『中國禪宗通史』(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422-431.>

69) ⑧ “... 辱中張明遠 偶獲雪堂刊本及蜀本 校訂訛舛 刊成此書 流通萬古 ...”

주변에서 大慧禪師가 土地神 등 社鬼에게 盟誓하고 불태웠던 『碧巖錄』을 다시 간행하려는 때문에 두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⁷⁰⁾고 한 점은 焚毀事件 이후로도 『碧巖錄』의 간행은 일종의 禁忌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古興藏本 『碧巖錄』은 비록 23칙이 수록된 제2권 1책의 零本에 지나지 않으나, 張明遠 중간본 『碧巖錄』보다 앞서는 初期刊本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碧巖錄』의 편찬 과정은 물론 誤脫字·語節의 校勘 등 『碧巖錄』의 원본을 연구하는 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禪宗文獻이며 아울러 현존 世界最古의 『碧巖錄』으로 평가될 수 있는 文化財로 판단된다.

5. 結 論

이상에서 『碧巖錄』의 編纂·初刊·焚毀·重刊·流通 및 새로이 발견된 古興藏本 『碧巖錄』의 版本 등에 관하여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碧巖錄』은 佛果克勤 선사(의 문도들이 雪竇重顯 선사의 『雪竇頌古』를 저본으로 佛果禪師가 添述한 鈞語(垂示)와 短評(着語) 및 詳評(評唱) 등의 내용 등을 부가하여 편찬한 禪家의 敎訓書이며 禪法書이다.

(2) 『碧巖錄』의 편찬과 초간 및 禁毀와 重刊 등의 전후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는 張明遠 重刊本 『碧巖錄』에 수록되어 전하는 <四序>와 <五後序>에 불과하며, 이들 9편의 자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도 적지 않다.

(3) 『碧巖錄』 편찬의 저본인 『雪竇頌古』는 雪竇禪師가 公案 100칙을 엄선하여 頌을 붙인 것이나 그 선취의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으며, 『碧巖錄』의 구조는 대체로 ① 佛果禪師의 垂示, ② 雪竇禪師의 本則, ③ 佛果禪師의 本則評唱, ④ 雪竇禪師의 頌, ⑤ 佛果禪師의 頌評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碧巖錄』은 佛果禪師의 문도들이 기록한 것을 저본으로 늦어도 宣和 7년(1125) 무렵에는 편찬이 완료되었으며, 佛果禪師의 생전인 宣和 7년(1125)에 刊行에 착수하여 靖康의 大變과 북송조가 멸망하는 국가적 위기로 중단과정을 거친 후 南宋朝 高宗의 建炎 2년(1128)에 이르러 비로소 初刊되었다.

(5) 『碧巖錄』은 紹興 10년(1140)을 전후로 『碧巖錄』이 문도와 학인들을 미혹시킬 것을 염려한 大慧禪師에 의하여 일체의 寫本·版本·木板 등이 焚毀되는 一大事件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碧巖錄』의 초간본은 전해지는 것이 없어 당시의 정확한 題名이나 간행시기 및 형태서지적인 내용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6) 張明遠이 『碧巖錄』을 중간하는 데에는 雪堂刊本과 蜀[寫]本을 저본으로 訛舛을 校訂한 뒤

70) ⑧ “… 居士二子 得心疾 … 或者又謂 某上座火此書 盟之社鬼者深重 居士二子之患正坐此 ….”

大德 4년(1300) 무렵에 중간을 위한 定稿本과 板下本을 제작하고 중간에 착수하여 延祐 4년(1317) 무렵에 畢役된 것이다. 『碧巖錄』의 則次番號는 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다.

(7) 古興藏本 『碧巖錄』은 제2권의 1책만 잔존하는 ‘零本’으로 도합 23칙이 수록되어 있으나 則次番號가 없으며, [제12칙] · [제17칙] · [제21칙] 등이 張明遠 重刊本에는 2칙으로 분할된 경우도 있다. 또한 수록내용, 내용의 서술용어, 文字와 語句의 刪略, 語順의 변동, 虛詞와 語氣詞 등의 생략, 피휘 등의 차이가 있어 張明遠 중간본이 元朝의 간본인 반면 古興藏本은 南宋朝의 간본임을 알 수 있다.

(8) 古興藏本 『碧巖錄』은 현전하지 않는 雪堂刊本인지 坊刻本 중의 하나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張明遠 重刊本보다 간행시기가 앞서는 初期刊本으로, 『碧巖錄』의 원본을 연구하는 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禪宗文獻이며 아울러 現存 世界最古의 『碧巖錄』으로 평가될 수 있는 文化財이다.

<참고문헌>

[原典資料]

佛果克勤 著. 『佛果圓悟禪師評唱雪竇頌古碧巖錄』.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第2卷. <古興藏本>.

佛果克勤 著. 『佛果圓悟禪師碧巖錄』.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張明遠 重刊本>.

[單行本・論文]

杜繼文, 魏道儒. 『中國禪宗通史』.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李豐園. “『碧巖錄』研究.” 碩士學位論文. 上海師範大學, 2004.

末木文美士. “『碧巖錄』の諸本について.” 『禪文化研究所紀要』 第18號(1995). 51-81.

徐時儀. “古興藏木刻本『碧巖錄』考.” 『文獻』 第4號(2016). 45-53.

宋靜淑. “『佛果圓悟禪師碧巖錄』의 編纂과 受容.” 『書誌學研究』 第60輯(2014). 109-143.

[電子情報源]

個人圖書館: http://www.360doc.com/content/16/0818/19/14295779_584164046.shtml

大正新脩大藏經: <http://21dzk.l.u-tokyo.ac.jp/SAT/ddb-bdk-sat2.php>

善佛教: <http://www.liaotuo.org/chanzong/dianzang/34106.html>

[中國]人名規範檢索: <http://authority.dila.edu.tw/person/>

